

# 민주당 담양군수 결선 후보들, 세확보 경쟁 치열

### 이재중·최화삼, 경선 탈락자 등 지지선언 잇따라 내일까지 결선 투표...당원·국민투표 50%씩 반영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을 앞두고 이재중·최화삼 예비후보의 세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막판까지 경선 탈락 후보 및 지지세력들의 지지를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중 예비후보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경선에 탈락한 김정오 전 담양군의회원이 우리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담양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이재중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는 또 다른 경선 탈락자인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의 지지를 받았고, 입지자로 거론됐던 윤영덕 전 국회의원의 지원도 받았다.

이에 최화삼 예비후보 측은 “경선 탈락

자들의 지지자 100여명이 캠프를 찾아와 지지를 선언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맞대응했다.

김정오 경선탈락 후보 등의 지지자 100여명은 캠프를 찾아와 “김정오 후보의 이후 지지 선언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최화삼 후보가 담양군수 적임자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전했다.

앞서 최 후보 측은 “결선 실시일이 사전 유출 경찰 등 중앙당 선관위가 이재중 후보에게만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이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지자들의 입을 빌어 “후색선전과 억지 의혹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애들러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을 앞두고 이재중 예비후보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을 앞두고 최화삼 예비후보가 담양장날 시장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수 경선 후보자 결선 투표는 7일과 8일 이틀간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른다.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해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판세는 후보 간 가산점

과 감산점, 1차 경선 탈락 후보들의 지지 선언 등 표심 이동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중 전 행정관은 정치 신인으로 20% 가산점을, 탈락 경력이 있는 최화삼 이사장은 -25% 감산을 적용받는다. 결선 투표에

서 승리하려면 이 전 행정관은 최소 39%, 최 이사장은 최소 62%를 얻어야 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주말 결선은 경선 탈락자 3명과 전직 군수들의 지지표가 어느 후보에게 쏠리느냐와 가감산률이 당락

에 중요 변수다”라며 “정치 신인의 파죽지세나, 2전3기 토박이나, 예단하긴 쉽진 않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

<p>광주</p>														
	<p>전남</p>													